

6/21/26

설교 제목: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가?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마태복음 12 장 38-50 절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막 8:11-12; 눅 11:24-26, 29-32)**

38 그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41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43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막 3:31-35; 눅 8:19-21)**

46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7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48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서는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고, 귀신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등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표를 보여 달라고 합니다.

38 그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확실한 근거를 찾기 위한 간절함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 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자, 그는 예수님의 창 찔린 손과 옆구리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창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창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직접 확인한 도마는 즉시 그 자리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라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의 근거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증표나 표적을 구할 때는 기꺼이 응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들은 여지껏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을 보고 들었음에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적을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새로운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보기 원하는 표적은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 상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적입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 때와 같은 강성한 유다 왕국을 건설하는 이적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인새인들을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그리고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3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신실하지 못한 그들을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경험한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나를 선지자로 칭하심으로써 선지자적 사역을 행하시는 메시아의 운명을 미리 보여 주십니다.

요나가 3 일 동안 물고기 뱃 속에 있다가 구원을 받은 것같이, 당신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3 일 후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 때와 같은 강성한 유다 왕국을 건설하는 메시아 상을 나타내는 기적을 구했으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기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으로 인해 그들이 맞게 될 비참한 종국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에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41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선지자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였으나, 이 세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마지막 심판 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정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땅 끝에서 찾아 온 남방 여왕과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비교하십니다.

남방 수바 여왕은 이방인임에도 지혜를 구하기 위해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을 찾아 왔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 보다 더 크신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그분의 말씀에 귀기울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마지막 심판 날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정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실상을 폭로하고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3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은 인간 속에 거하여 그 사람을 자신에게 종속시키기를 열망합니다.

그런 이유로 어떤 한 사람에게서 나가면 또 들어갈 다른 대상을 찾습니다.

찾지 못하면 나왔던 곳을 다시 들어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다 전에 있던 집이 비었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자신 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일곱은 완전수로, 일곱 귀신이란 가장 강하고 악한 귀신을 상징합니다.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축사 사역으로 인해 잠시 악한 영의 속박에서 벗어나는가 싶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고로 지금 보다 훨씬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AD 70 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암미'를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이미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개별적으로 영원히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는 비록 혈연적인 가족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선언하시는 하늘 나라 영적 가족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가족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를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을 배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과 가족 사이의 갈등을 나타내 보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46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7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48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 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고 하늘 아버지의 보호 아래 들어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 아버지'를 다른 사람의 아버지로 확장하십니다.

열 두 제자들에 한정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모두가 가족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혈연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혈연 관계보다 영혼의 거듭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영적 신앙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보다 더 위대하고 영속적인 영적 가족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이 땅의 한 가정에서 태어나 혈연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저들은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마지막 표적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요나의 경고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과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않고 찾은 남방 여왕의 반응을 예로 들어 이 세대 이스라엘의 반응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저들은 요나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 자신들 가운데 계셨음에도 회개하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종국을 예언하십니다.

그들은 심판 날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거절로 인해 그들의 최후는 비참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결국 심판을 자초하는 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향해 로아미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당신의 참된 가족이라고 하십니다.

혈연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경력이나 종교적인 배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영적 가족 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된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적 가족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